

# Daishin 해외파생 Daily

Global 파생상품본부 노승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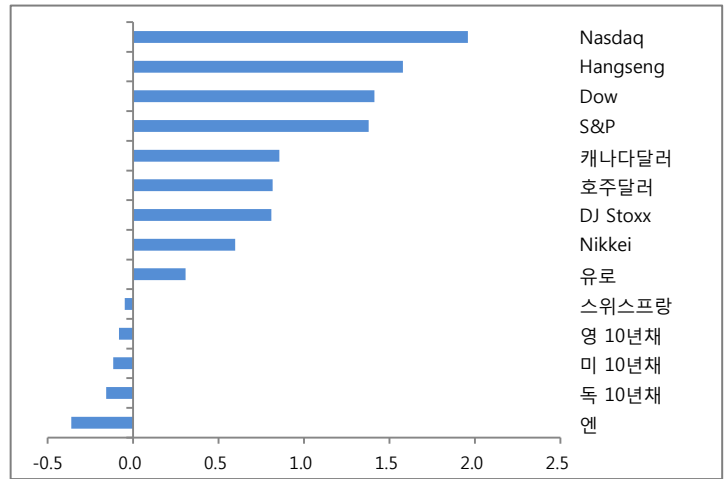
해외선물 769-3311, 3333 / ENERGY, LME & LBMA 769-2233

## ▶ 오늘의 체크 포인트 : 뉴욕 증시, 시진핑과 트럼프 화해 손짓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시진핑 중국 주석의 유화적 발언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화답으로 큰 폭 올라 마감했다. 뉴욕증시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자동차 관세 인하 등 중국의 수입 확대 방침을 밝힌 점이 무역전쟁 우려를 줄이며 주가를 밀어 올렸다고 진단했다. 시 주석은 이날 보아오 포럼 연설에서 중국은 무역 흑자를 목표로 하지 않으며, 수입 확대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자동차 수입 관세를 상당폭 인하하고, 금융업의 개방 속도도 올리겠다고면서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집행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시 주석의 관세와 자동차 무역장벽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한 데 대해 매우 감사하다며 지식재산권과 기술 이전에 관한 이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같이 위대한 전진을 이루어 낼 것이라고 화답하면서 무역 관련 협상 기대를 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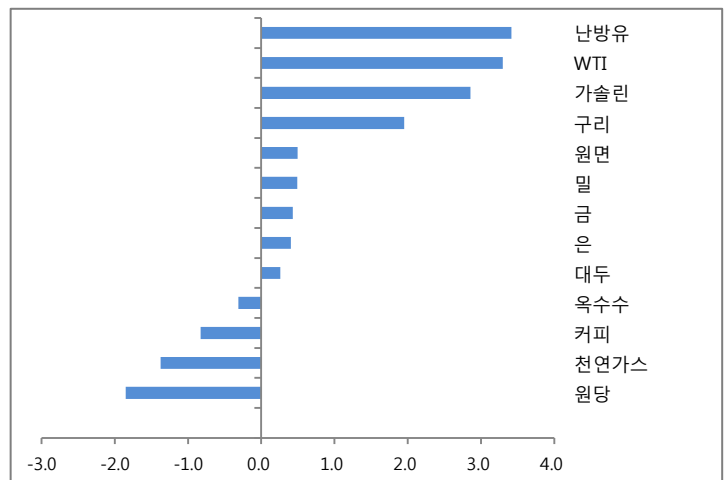
### ▶ 금융시장

<b>주식</b>	뉴욕증시 3대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긴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누그러지면서 지수를 끌어올림
<b>채권</b>	미국 국채 수익률이 일제히 상승. 시진핑 주석이 관세 인하를 공언한 후 위험자산인 증시가 랠리를 나타냈고, 미국의 생산자물가가 예상보다 오른 것도 증시를 부양
<b>통화</b>	미국 달러는 유럽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종료 기대와 무역 전쟁 우려가 완화된 가운데 혼조세를 나타냄. 시장전문가들은 다음달 나오는 3월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기대가 커졌으며 시리아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도 주목 함



### ▶ 원자재시장

<b>에너지</b>	뉴욕 유가는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무력사용 가능성 등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는 데 따라 큰 폭으로 상승. 시진핑이 자동차 수입 관세 인하 방침을 밝히는 등 유화적인 발언을 내놓은 것도 유가를 지지
<b>귀금속</b>	뉴욕 금가격은 달러가 약세를 이어가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 무역 갈등이 완화되고 있지만 지정학적 위험이 여전히 금 가격을 지지해주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
<b>농산물</b>	밀 가격은 다소 주춤했으며, 대두는 소폭 상승, 옥수수는 중국발 뉴스로 약세를 나타내며 농산물 시장이 혼조세로 마감



### ▶ 주요지표일정

4.11(수)	4.12(목)	4.13(금)	4.16(월)	4.17(화)
10:30 인플레이션율 (중)	03:00 FOMC 회의록 (미)	12:00 수입, 수출 (중)	21:30 소매판매 (미)	11:00 GDP 성장률 (중)
PPI (중)	16:30 외국인 직접 투자 (중)	18:00 무역수지 (유)	23:00 NAHB 주택시장지수(미)	21:30 신규주택 착공건수(미)
17:00 ECB 정책회의 (유)	21:30 수출물가 (미)	23:00 소비자신뢰지수	23:00 기업재고 (미)	22:15 산업생산 (미)
21:30 인플레이션율 (미)	수입물가 (미)	노동이동 서베이 (미)		

▶ 금융시장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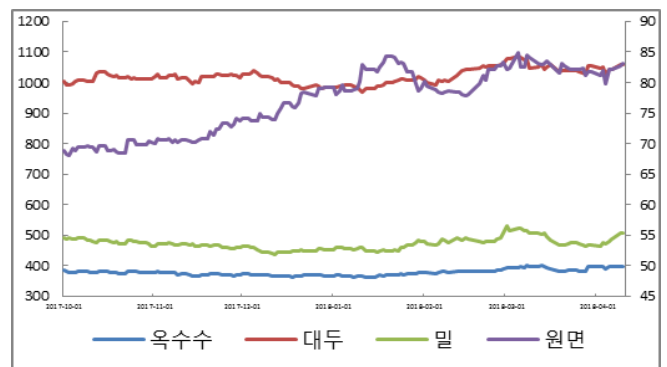
품목	증가	전일비	전일비(%)	연초대비(%)	
지수	E-mini 다우	24,351	339.00	1.41	-1.63
	E-mini S&P	2,655.10	36.10	1.38	-0.88
	E-mini 나스닥	6,624.25	127.25	1.96	3.04
	DJ Stoxx 50	3,360	27.00	0.81	-3.25
	독일 DAX	12,406	150.00	1.22	-3.44
	영국 FTSE 100	7,189.00	75.00	1.05	-4.89
	H-Share	12,339.00	262.00	2.17	2.18
	항생	30,761	478.00	1.58	0.75
	니케이	21,860	130.00	0.60	-3.23
	Vstox지수	16.45	-0.95	-5.46	21.85
VIX지수	19.43	-0.40	-2.02	78.62	

품목	증가	전일비	전일비(%)	연초대비(%)	
채권	미국 10년채	120.77	-0.14	-0.12	-2.36
	독일 10년채	159.05	-0.25	-0.16	-1.38
	영국 10년채	122.25	-0.10	-0.08	-1.59
통화	호주달러	0.7768	0.0063	0.82	-0.60
	영국파운드	1.4223	0.0050	0.35	4.51
	캐나다달러	0.7951	0.0068	0.86	-0.67
	유로	1.2421	0.0038	0.31	2.19
	일본 엔화	9,371.5	-34.0	-0.36	4.55
	스위스 프랑	1.0510	-0.0005	-0.05	1.00
	달러인덱스	89.2800	-0.2540	-0.28	-2.38
	위안화	0.15876	0.00065	0.41	4.48

▶ 농산물시장 DATA

품목	단위	증가	전일비(%)	월초대비(%)	연초대비(%)	
농산물	옥수수	USc/bu	397.75	-0.31	0.38	8.30
	대두	USc/bu	1,060.25	0.26	0.45	7.83
	밀	USc/bu	508.50	0.49	8.54	12.19
	대두유	USc/lb	31.85	1.05	-0.06	-4.73
	대두박	USD/ST	388.00	-1.45	0.44	19.94
	팜오일	MYR/MT	2,433	-1.26	0.33	-3.91
	커피	USc/lb	119.55	-0.83	-0.54	-8.71
	원당	USc/lb	12.19	-1.85	-2.17	-18.95
	원면	USc/lb	83.17	0.50	1.67	4.96

▶ 농산물시장



▶ 농산물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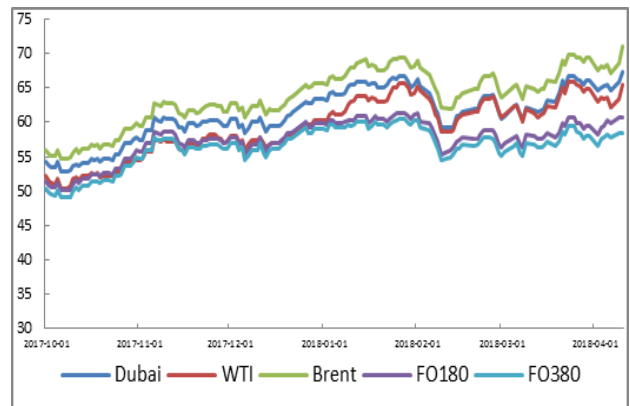
Grains	- 밀 : 밀 가격은 다소 주춤. 일부 트레이더들은 추운 날씨에 대한 우려에 전일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했다고 진단. 시장 전문가가는 지난주 미중 무역마찰로 급격한 변동을 기록한 뒤, 전반적으로 시장은 잠잠한 모습을 보였고, 이날 발표될 농무부 보고서 앞두고 포지션 조정이 발생했다고 언급
	- 대두 : 소폭 상승. 트레이더들이 미국과 중국간 무역 전쟁 우려를 털어내고 아르헨티나의 수확량 감소에 주목하기 시작한 결과
	- 옥수수 : 중국발 뉴스로 약세를 보인 옥수수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한 중국이 자국 내 수급을 진정시키기 위해 국가 비축 분 700만톤을 오는 12일 판매할 것이라는 소식으로 하락
Softs	- 설탕 : 금일 설탕 가격은 1.9% 하락한 12.13센트에 마감. 장 중 한 때, 11.96센트까지 하락하기도 함. 지난 2015년 9월 이후 최저치 기록. 설탕 가격이 브라질 중남부 설탕 재배지역에서 3월 하반기 제분업자들이 설탕보다는 에탄올 생산에 집중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하락 압력을 받음
	- 커피 : 전일의 가격 상승분을 반납하고 0.9% 하락하며 1.176달러에 마감

▶ 에너지 상세 DATA

	품목	단위	월물	증가	전일비	전일비(%)
에너지	Dubai	USD/bbl	APR 18	67.274	1.45	2.20%
	WTI	USD/bbl	MAY 18	65.51	2.09	3.30%
	Brent	USD/bbl	JUN 18	71.04	2.39	3.48%
	Naphtha	USD/MT	APR 18	597.033	11.403	1.95%
	Gasoline	USc/Gal	MAY 18	204.09	5.67	2.86%
	Heating Oil	USc/Gal	MAY 18	206.48	6.82	3.42%
	Natural Gas	USD/MMbtu	MAY 18	2.656	-0.037	-1.37%
	Kero	USD/bbl	APR 18	83.231	1.406	1.72%
	SingGO	USD/bbl	APR 18	82.81	1.27	1.56%
	FO180	USDMT	APR 18	389.265	3.43	0.89%
FO380	USD/MT	APR 18	375.926	4.32	1.16%	
GcNewc	USD/MT	JUN 18	92.65	-0.15	-0.16%	

▶ 에너지시장

FO CF : 6.35



▶ 에너지 상세 시장

원유 및 제품	- 국제 유가가 미국과 중국이 세계 경제에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무역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신뢰가 높아진 영향에 3% 이상 급등
	- 중동의 긴장감과 달러화 약세도 유가 상승에 힘을 보탬. 한 시장 전문가는 “또 다른 어마어마한 날이었으며, 무역전쟁 우려 완화에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달러 약세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진단
석탄	- 호주의 상품 전문가들에 따르면, 호주의 석탄 광산들이 석탄 수요가 현물 가격을 인상 시킨 후 일본 유틸리티 업체들로부터 6년간 최고의 공급 계약을 맺을 예정. 일본의 유틸리티 업체들은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연간 공급물량에 톤당 100달러를 지급할 것으로 보임. 이는 2017년의 거래보다 18% 높은 수준으로 2012년 이후 최고치

▶ 비철 상세 DATA

	구분	증가	전일증가	변동폭(\$)	변동률(%)	Official Cash Bid	Official Cash Ask	Official 3M Bid	Official 3M Ask
가격	구리	6,968.50	6,830.00	138.50	2.03	6,887.00	6,888.00	6,928.00	6,930.00
	알루미늄	2,211.00	2,139.00	72.00	3.37	2,171.00	2,171.50	2,173.00	2,175.00
	아연	3,249.50	3,211.00	38.50	1.20	3,238.00	3,240.00	3,245.00	3,246.00
	납	2,388.00	2,385.00	3.00	0.13	2,400.00	2,401.00	2,400.00	2,402.00
	니켈	13,730.00	13,435.00	295.00	2.20	13,695.00	13,700.00	13,700.00	13,725.00
	주식	20,876.00	21,180.00	-304.00	-1.44	21,325.00	21,375.00	21,200.00	21,250.00
재고	구분	전일재고	입고	출고	현재 재고	증감	ON	CANCELLED	전체비중(%)
	구리	372,175	0	2,650	369,525	-2,650	301,425	68,100	18.43
	알루미늄	1,254,125	25	4,575	1,249,575	-4,550	972,000	277,575	22.21
	아연	203,225	0	2,050	201,175	-2,050	166,050	35,125	17.46
	납	129,175	0	0	129,175	0	78,675	50,500	39.09
	니켈	315,870	870	1,554	315,186	-684	196,470	118,716	37.67
주식	1,995	10	0	2,005	10	1,975	30	1.50	

▶ 비철시장

비철	- 알루미늄 가격이 또 급등. 2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 영국이 미국의 러시아 제재에 따라 러시아 알루미늄 생산업체인 루살의 제품에 제한을 가한 여파가 작용. 이날 알루미늄은 4.2% 오른 톤당 2229달러에 거래. 장중에는 2142달러까지 오르며 지난 1월 29일 이후 최고치를 나타냄
----	--

투자자 유의사항

Daishin 파생상품 Daily는 당사의 Global파생상품부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와 정보를 사용하여 작성한 리포트로 고객의 투자 편의를 위하여 단순 참고용으로 제공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은 특정한 투자상품, 권유 또는 광고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당사는 본 리포트에서 제공된 시장분석, 전망을 포함한 모든 내용에 대하여 그 정확성 또는 예측의 실현여부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고객의 선물투자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누구든지 본 리포트를 선물투자와 관련한 분쟁에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리포트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사는 본 리포트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한 일체의 투자행위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리포트를 무단으로 복제/전송/인용/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